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2016.9.18.(다해) 제2017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대곡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오늘은 모든 교우가 함께 모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리며 순교 정신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친 우리 신앙 선조들을 번제물처럼 받아들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성인들을 본받아 우리도 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청합시다.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8,31ㄴ-39

복음 루카 9,23-26.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기회가 되면 가까운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되새기겠습니다.”



하늘 길을 택한 사람들

주민기 베네딕도 신부 | 5대리구 사목국장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선조들은 모진 박해와 고통,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면 서까지도 소풍가듯 기쁘게 노래하며 하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이십니다. 그들은 안양 수리산 자락에 삶의 기반을 잡으시고 교우촌을 건설하셨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곧 마을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평소 순교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던 그들은 언제든지 순교의 때가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교우들에게도 자상하게 ‘순교 교육’을 시키며,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셨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면서도,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도 그분께서는 태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들 오셨습니다.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쉬십시오. 곧 식사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요기하시는 동안 저희는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교우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 함께 기쁜 얼굴로 순교의 길을 떠납시다.” 해 뜰 무렵, 그분은 포졸들을 깨워 정성껏 아침식사를 대접하시고, 남루한 옷을 입은 포졸들에게는 잘 다려진 새 옷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회장과 40여명이나 되는 교우들은 마치 잔칫집에 가듯이, 단체 소풍이라도 가듯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관현으로 끌려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교도들’, ‘천주학쟁이’라고 욕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징그러운 동물이라도 바라보듯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가를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갈바리아산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앞에 뵈는 듯이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천국을 일찌감치 맛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영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이 또한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손에 손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다 함께 하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필로**

찬미받으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

신종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 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 기
빠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이라는 시의 한 대
목입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물길이 트이듯이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에 피조물과 서로 주고받
으며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은
흘러 흘러서 다시 깨끗해진 비가 되어 돌아오
고 바위는 깎여서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우
리의 배설물을 분해해 줍니다.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나무들이 다시 신선한 산소로
만들어 주지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놓쳐버
린 이런 순환과 공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
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는지 느
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
터 이미 있는 이런 공동의 집인 지구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
니다(『찬미받으소서』 139~140항 참조).

우리가 맺는 자연과의 관계는 사회와의 관계
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어떠한 변화와 움직임
이 자연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덕유
산에 케이블카가 놓이면서 그 주변이 황폐해
지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와 관계 맺는 생태계는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어떠한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낙동
강이 사람이 마실 수조차 없는 4급수로 전락
했다는 소식도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가

없었다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테지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보가 물을 가둬 두니까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은 사실 여하한 규제를 무력화
시키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고도 이
런 저런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들
려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모든 일이 잘 될까
요? 회칙의 가르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의 각 계층 안에서, 그리고 그 계층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제도들이 발
전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무
엇이든 자유의 상실, 불의, 폭력과 같은 부정
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회칙 142항)

어떻습니까? 규제를 약화시키고 완화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자연의 강과 그 강
에 기대어 사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에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있어 왔던 고유한 문화는
약화되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고유의 것
을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 생태
의 것이든 인간 사회의 것이든 말이지요. 생활
방식을 하나로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
다(회칙 145항 참조).

다양함이 없는 자리에는 어떠한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
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우리들의 모
임에서도 다른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봐 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말씀 한번 나누어 봐 주
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지난 4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생전에 ‘살아 있는 성녀’로 불린 복녀 마더 데레사(1910~97) 수녀님을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올리셨습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1910년 중부 유럽의 알바니아 스코페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곤히아(꽃망울) 아네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심으로 수도성소에 뜻을 두고 있다가 17세가 되던 해에 아일랜드 더블린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선교의 수호자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택한 수녀님은 1929년 인도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원하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례 피정을 가던 중 수도회를 떠나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수녀님은 전통적인 수녀복 대신 인도여성들의 평상복인 사리를 수도복으로 입고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의 오해와 냉담 속에서도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세워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 양육하고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등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랑을 실천하며 30년간 빈민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수녀님의 봉사는 종교와 국적

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갔고 나병,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급식소, 고아원, 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수녀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그 이듬해엔 인도 최고의 시민훈장 바라트 라트나도 받았습니다. 1981년 5월 4일에는 당시 대구대교구 교구장이셨던 서정길 대주교의 초청으로 우리 교구를 방문해 성모당을 참배하고 희망원을 찾아 원생들을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1997년 9월 5일 87세의 일기로 선종하시기까지 온 생을 통해 약자 편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 자비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수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을 통해 말씀하신대로 “인간적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고”, “규칙과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지더라도”, “변방으로 가서” 하느님 자비의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마더 데레사는 ‘저는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사랑스럽게 반복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그분의 미소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와 자비를 바라는 인류의 모든 이에게 희망과 기쁨의 지평을 펼칠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 시성식 강론 중) **필로**

교회에서 비롯된 일상 문화

빵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빵 중에는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교회에서 유래된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프레첼이라고 하는 독일의 빵과 수도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를 대표하는 간식 마카롱, 마들렌, 에그 타르트 등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반죽을 8자 모양으로 꼬아 구워 빵이나 과자로 만들어지는 프레첼은 특유의 매듭모양으로 유명한데 기도하는

모습, 팔짱을 낀 기도자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첼은 라틴어로 '작은 보상'이라는 뜻의 '프레티올라(Pretiola)'가 그 어원인데 610년경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빵을 만들고 남은 반죽으로 기도나 성경구절을 잘 외우는 어린이에게 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떠 만든 빵을 준 것이 그 기원으로 동그란 세 개의 구멍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면서 종교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레첼의 독일어인 '브레첼(brezel)'이란 말도 팔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브라키움'에서 왔으며 사순 시기에 금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 대신 빵을 먹던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빵모양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빵의 형태로 구워지다가 어느 날 프레첼을 만들던 사람의 실수로 빵을 두 번 굽는 바람에 단단하고 바삭한 과자 형태의 프레첼이 생겨나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일종의 과자 같은 마카롱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 대표



적인 프랑스의 간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카롱은 17세기경 가르멜 수도원의 수녀님들에 의해서입니다. '수녀들의 마카롱'이라 불리며 지금도 그 비법을 이은 마카롱 전문점이 프랑스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개모양으로 만든 작고 폭신한 빵인 마들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프랑스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사랑이 깊은 나라로 성녀의 축일을 성대하



게 지내면서 빵을 만들어 나눴는데 이 빵이 프랑스어로 마리아 막달레나인 마들렌입니다.

계란을 활용해 만든 에그 타르트는 포르투갈 벨렘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수도복을 뽀뽀하게 다리기 위해 계란 흰자로 풀을 먹였는데 이때 남은 노른자를 어떻게 써야할까 고민하다가 에그 타르트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

‘한티 가는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걸었던 길을 모티브로 한 도보 순례길 ‘한티 가는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경북 칠곡군 가실성당에서 한티 순교성지까지 전체 5구간으로 총거리는 45.6km입니다.

▶ ‘한티 가는 길’ 구간별 안내

1구간: 가실성당-임도입구-숲길갈림길-전망데크-바람쉼터-제1연화교-도암지쉼터-성모상-신나무골성지(10.5km)

2구간: 신나무골성지-임도입구-갈림길-전망쉼터-땃골지-성당묘지-양떼목장-창평임도-숲길갈림길-창평지(9.5km)

3구간: 창평지-쌀바위-갈림길-금낙정-여부재-실골삼거리-송산지-동명성당(9.0km)

4구간: 동명성당-동명저수지-동명수변공원-양지교-청산농원쉼터-남원교-원당공소-진남문(8.5km)

5구간: 진남문-소나무골목입구-마당재(평산아카데미)-한티성지-한티마을사람(8.1km)

신간 안내

신 영세자 ·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서

하느님과 함께 cum cum



교사용 / 15,000원
180*255 / 116쪽

신자용 / 12,000원
180*255 / 80쪽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며,
복음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살며,
복음에 따라 이 세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여섯 명의 새 사제가 그 답을 찾아가며 만든 교리서!

■ 구입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선한목자연연구소 (053)660-5100
인터넷 분도북, 교회서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나파시오
사우어 아바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우리 후손들이
우릴 끔찍히
생각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니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야...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분발아...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9월 19일(월)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19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21일(수) 19:30 신평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4일(토) 10:00 월성성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경암송발표대회

일시: 10.23(일) 14:00

장소: 월성성당 내 문화관 대강당

마감: 10.11(화)

문의: 각 본당 사무실

성소 | 피정

서울대교구 성마리아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10.2(일) 14:00

장소: 서울 성수동 양성센터

대상: 재속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제3회와는 다름)

문의: (010)8707-3488 / (010)9437-5903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헌사·미사·안수)

일시: 9월 피정은 쉽니다.

10.19(수) 13:00~16:30

장소: 삼덕성당 /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422-6691

윤원진(비안네) 신부와 함께하는 음악 피정

일시: 9.23(금) 20:00

장소: 성북성당(산책 1동) / 5천원

문의: 성북성당, 953-0410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0.1(토) 10:00, 진량성당

내용: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버스운행: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예수회 성소 식별 피정

기간: 10.7(금)~9(일)

주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신청: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1박 2일 음악 힐링 마음 명상 피정

기간: 10.14(금) 18:30~15(토) 15:00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대상: 개인 혹은 단체(10명 이상)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10)3542-4835

1박 2일 우애 피정

기간: 11.5(토)~6(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분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9286-224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9.24~27 / 9.30~10.3 / 10.5~7

10.11~14 / 10.18~21 / 10.23~26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바오로딸 행복한 책읽기

일시: 10.7(금) 14:00~17:00(10회)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 2층 교육실

주제: 하느님과의 친밀성 키우기

대상: 40~60대 12만원 / 마감: 9.25(일)

문의: 권마리아 수녀, (010)9064-5013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MSC 모집

예수마음을 살아갈 이들을 초대합니다.

대상: 40세 이하 남녀청년(미혼·기혼)

다음카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장소: 부산 본원 / 문의: (010)9330-3104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10.16(일)

장소: 원주교구 배론성지

신청: 9.21(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제49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2017.1.3~2.5(3, 5주 선택)

세계·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

대·일반: 2017.1.3~2.12(6주, 장기 선택)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H.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U & 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추·관절 전문 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박 은 석(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 철 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요양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환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5(일) 14:00

유의: 추석연휴 관계로 날짜 변경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제3회 노인의 날

일시: 10.8(토) 11:00~16:00

장소: 성모당 일대

대상: 본당 65세 이상 어르신

회비: 1천원(중식 제공)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옥계성당 교육관·유치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흥창익(비오) 신부 사진개인전

기간: 9.1(목)~30(금)

장소: 예담갤러리(샬트르수녀원)

주제: 기억(La Memoria)

문의: 옥계성당, (010)8772-8731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소공동체 체험수기 공모

기간: 7.29(금)~9.30(금)

내용: 소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했던 내용

제출: 교구 사목국(samok@dgca.or.kr)

문의: 250-3056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제22기 뿌에리칸포레스 합창단원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사회교리학교 개설

기간: 11.7~12.5(매주 월) 19:3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마감: 11.3(목) / 회비: 5만원(교재제공)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새빛학교 기초영어·한문반 모집

영어: 화, 목 13:00(주 2회)

한문: 화 15:00(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5차 ME주말: 10.21(금) 19:00~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성녀 글라라 영성 강좌 모집

기간: 10.22~17.4.22 매월 넷째주(토)

시간: 14:00~17:00 / 강사: 김찬선 신부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주최: 재속프란치스코회 / 5만원

문의: (010)3839-9203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9.24(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

강사: 송창현(미카엘)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남정구(마지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곡연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팔리)
http://www.ksnose.com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일본성지순례
후쿠오카, 히라노, 나가사키
※ 출발일 : 11월 23일(3박 4일)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석기(마오로) 010-3514-385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